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1월 ~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프랑스, C.O.O.L, 원산지, 유럽, 도입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프랑스, C.O.O.L, 원산지, 유럽, 도입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08. 19
프랑스 원산지 표시 새 규정
C.O.O.L 규정 도입

2017. 01. 01
육류 함유량 8% 이상 제품에
C.O.O.L 규정 적용 시작
(2년간)

2018.12.31
C.O.O.L 규정 종료
EC, 프랑스 상황 살펴
모든 회원국에 도입 가능
시사



핵심이슈
도출

“프랑스 C.O.O.L 규정 적용으로 유럽 단일 시장 붕괴 우려”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프랑스, 육가공품에 새로운 C.O.O.L 규정 의무화

프랑스가 2016년 8월 19일 제정한 C.O.O.L(Country-of-origin labelling) 규정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규정은 가공식품 중에서 육류 함유량이 8% 이상인 제품 및 우유, 혹은 우유가 함유된 제품의 육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가공되지 않은 소, 돼지 양고기 및 가금류에 이미 적용되어 있던 원산지 표시 규정이 가공 제품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FDE(Food Drink Europe)은 이 규정이 생산 및 소비자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이 규정이 패키징 및 생산 프로세스와 같은 추가적인 관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유럽 육가공 무역 조합 UECBV(European Meat and Livestock Trading Union)은 프랑스의 이 법령이 유럽 단일 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가공 제품을 생산할 때 해외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기가 어렵다면, EU 시장의 원료 대신 오직 자국의 원료만 사용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FDE의 주장 또한 이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많은 논란에도 프랑스는 육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C.O.O.L 규정 만료 후에는 상세한 보고서를 유럽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프랑스의 규정 도입이 성공적이라면 모든 회원국에 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C.O.O.L 규정이 유럽 공동체에서 단일 시장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였다. 원산지 표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유기농 제품들은 이 규정을 피해가지만, 프랑스는 이 규정을 통해 그 외의 모든 제품들에 엄격한 육류 원산지 표시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육류 원산지 표시가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 미 대선과 같은 국제정세 변동으로 인해 세계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또한 이 흐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육류의 생산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